

第 53 回憲法と平和を考えるつどい

“自由”と“言論”のゆくえ！ —最近の状況から見えてくるもの—

講師：南 邦和 氏（詩人・日本ペンクラブ会員）

日時：2003 年 2 月 11 日（火）10～12 時

場所：宮崎市中心公民館大研修室

目 次

講演要旨……………	1
南邦和氏の詩……………	2
・鳥致院を過ぎて	3
・山陰一揆考・決行	3
・帰る	2
앞선文學から……………	4
・尹東柱 메모	4
・다시 妄言여우 日本 江藤에게	9
日本ペンクラブ——P.E.N.憲章……………	10
各界からの声明等……………	11
・日本ペンクラブ	11
・日本劇作家協会ほか	12
・日本新聞協会	13
・日本書籍出版協会	14
ニーマラー牧師の回想……………	13
社説解説記事等……………	15
・【社説】個人情報保護の新法案（宮日）	15
・【解説】報道機関に強い危機感（共同）	16
・【解説】メディア規制 3 法案とは（共同）	17
・開始 48 時間で大規模空爆 イラク攻撃で米紙報道（朝日）	18
・イラク攻撃、欧州 5 カ国では反対意見が優勢ニ調査（ロイター）	19
・ニューヨークでイラク攻撃反対デモ（ロイター）	19

主催：日本科学者会議宮崎支部・宮崎民主法律家協会

“自由”と“言論”のゆくえ ——最近の状況から見えてくるもの

南 邦和

- 韓国との因縁
“原風景”と歴史遊行
扶余への旅——〈百済の里〉
- 史実とロマン
「日本国」の成立と日本人
“建国記念日”のあいまいな根拠
- 日本人の歴史認識
日本の政治家妄言への反響
歴史教育の歪みと国際感覚
- 日本ペンクラブの活動
「ペン」は日本の良心——梅原猛
文学者“カナリア論”カート・ボネガット
- 国家監視社会への道
「国家秘密法」の爪痕——北大生事件
「有事法制」と市民的自由
- メディアの責任
イラクをめぐる報道姿勢——他国との比較
「ハンギョレ」の場合——韓国の新聞
- 北朝鮮報道から見えてくるもの
国家（国体）と国民
密告国家の悲劇
- 民主主義を阻むもの
「ぬえのような全体主義」辺見庸
“主権在民”の崩壊——潰される地方自治

日向灘に吐き出される

耳川 石並川

日ごろ魚獲りになじんだ川を
逃亡者として音も立てずに

「舟奉行」は陽気な若者だが
獣の沈黙で川霧を見つめていた
時おり 乳呑み児が泣いた

しらじら明けの前方に

波しぶきがあがっている

美々津は近い

恐怖と空腹の夜明けのむこうに

待っているものは何か

百姓たちは まだ知らないが

時間は もう止められないのだ

帰る

南 邦和

かれらは ほんとうに

帰って来たのだろうか

母国へ ふるさとへ わが家へ

四半世紀の苦渋の日日を

その表情と身ぶりに刻んで

日本政府チャーター機から降りて来た

五人の 中年男女

〈拉致被害者〉

その言葉では言い表わせない

巨大な何者かの手による被害者

歳月の 国境の 言語の 人間たちの

かれらの帰ってゆく場所

ほんとうは どこなのだ

その眼はふるさとや肉親を見てはいない

ハングルを習いはじめて

トラガシヨッタ（帰って行かれた）が

人の死（逝かれた）を意味することを

はじめて知った

「帰る」は 死者を送る言葉

人間は かならず

いすこかへ帰ってゆくのだから

帰命無量寿如来

（ひかりといのちきわみなき）

親鸞聖人の「正信心伝」は

帰るべき極楽浄土を示しているが

その道を捜し出すのが至難のわざ

カエロカエロ オウチヘカエロ

道端で 子供が母親にせがんでいる

かれらは ほんとうに

帰って行くのだろうか

子供たちの待つ北半島のわが家へ

祖国と呼び 首領様と呼ぶ 不可解な国へ

「帰る」という単語は すでに死語

五人の心はたえず 冷い日本海を

ワッタカッタ（行ったり来たり）するのだろうか

南 邦和

鳥致院を過ぎて

ぼくはいま
セマウル号のスピードに身を任せながら
京釜線を南下している
車窓に 教会の尖塔が飛ぶ
冬枯れた銀ポプラの樹上に
版画のようなカチガラスの巢

この国は いつ来ても
絶え間ない工事場の喧噪と
市場の賑わいを持っているが
人々の心根は優しく
ハングル表示の料理はうまく
女たちは 快活で美しい

チョチウオン チョチウオン
車内アナウンスの響きに
デジャ・ビュの風景がよみがえる
鳥致院（チョチウオン）
多くの 幼い記憶の底部に
刷り込まれている駅名だ

白い乳房のように
薄化粧したまんじゅう型の墓が
不意に夏草の情景に変わる
一九四六年夏
北からの日本人避難民（ぼくら）は
無蓋車でこの鉄道を南下していった

水原（スウォン）鳥山（オサン）天安（チヨナン）
なつかしい響きをもつ駅名の背後に
悲劇の構図がかぶさってゆく
だが ふたたび みたび
ぼくは この風景の中に帰ってくる
あの日の 少年の自画像を見るために

南 邦和

山陰一揆考・決行

みんな目覚めていた
男も女も年寄りも子供も
（牛や犬や鶏でさえ……）
山峡の村々はまんじりとみせず
空には十六夜の明月（旧暦九月十八日）
山陰 福瀬 小野田 羽坂 坪谷
それぞれの集落から黒い固まりが動いた

子供を 妊婦を 年寄りを
屈強な男たちが囲みながら
しだいにふくらんでゆく集団は
黙々と 南に向かって進む
あの山のむこうに何かがある
縛めを解かれた天地
百姓たちの夢見た自由な山野

와산文學



永土舎 장편공모 중간발표
尹東柱 추모 50주년기념특집

1995
12

□ 尹東柱 추모 50주년 기념특집

尹東柱 메모

- 獄死 50년을 맞아

미나미 구니가즈(南邦和)
李 保 慧 翁 翁 翁

금년(1995년) 2월 16일은 조선의 시인 尹東柱의 기일이었다. 1945년 이 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 순수하고 고고한 시인이 무언가를 크게 외치고(그것을 들은 간수는 조선말을 몰라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 필시 원통하고 절통한 가슴의 소리였을 것이다.) 숨진 그 날로부터 오십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서울 시내에 있는 尹東柱의 모교 연세대학교에서는 약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항시인·尹東柱를 그리는 모임'이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한다(朝日新聞). 그 추도식의 모습은 그 후, 한·일 공동제작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尹東柱·일본최하의 청춘과 죽음' NHK스페셜로 방영되었는데 시비 앞에서 서시(序詩)를 낭독하던 젊은 여대생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2월 16일 尹東柱가 재적해 있던 교토(京都)의 동지사(同志社)대학에서 '尹東柱詩碑완성 기념예배'와 그 제막식이 있었는데 한·일 양국에서 2백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 1933년생. 日本現代詩人會, 日本에세이스트클럽, 國際펜클럽 회원.

詩集: 《雨車》, 《春夢》, 《都市의 기억》

에세이·評論集: 《南國의 관세》, 《故郷에의 架橋》

현 日本 宮崎市에서 활동중.

제막식이 끝나고 니이지마회관에서 한·일 다섯명의 패널리스트에 의한 심포지움이 열려서 尹東柱작품의 번역을 둘러싼 열띤 공방전이 있었다고 한다.

또 2월 18일 도쿄 '東京의 敎文館'에서는 일본기독교詩人會의 후원으로 '尹東柱를 생각하는 모임'이 있었다. 한국에 地緣의 연고가 있는 시인 두 사람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는데 나도 십여 명의 발기인 명단에 끼어 참석을 했다. 오후 두 시 발기인 대표의 인사와 尹東柱가 살던 시대상황에 자신의 체험을 통한 '식민지 통치' 해설로 시작이 되었다. 이어서 기초강연자인 宇治郷毅씨가 '尹東柱의 생과 그 의미'라는 연제로 尹시인의 대표작인 〈序詩〉를 채택하여 어휘 분석에 의한 작품론을 전개해 나갔다(우지씨는 尹東柱의 同志社大 후배이다.)

연회전문학교 졸업 한 달 전인 1941년 11월 20일자에 쓰여있는 〈序詩〉에 담긴 죽음, 하늘, 부끄럼, 바람, 고통, 별, 사랑, 길, 오늘 밤...등의 어휘가 尹東柱의 모든 작품에 이어지는 키워드이고 그 때까지의 삶을 총괄하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이 시는 쓰여졌을 거라는 해석에는 크게 배울 점이 있었지만 내 개인적인 관심은 '치안유지법 위반' 용의의 소상한 내역이었다.

다음에 몇사람의 발표가 있었는데 총군위안부 문제 고발詩를 썼고 한국인 피폭자문제 등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내는 이시카와(石川隼子)시인이 등단하여 尹東柱 작품의 순수성과 그 시법의 특성을〈눈이 오는 지도〉를 낭독하여 시사하고 나서 尹東柱에게 바치는 자작시를 읽었다.

다음엔 재일한국시인 최화국 씨가 “尹東柱는 나보다 세 살 연하입니다...”로 시작, 동시대를 살던 尹東柱의 너무나도 순수, 무방비로 인했던 불행, 또 전일본무산자에술단체협의회, 일본포로레타리아문화연맹시절의 '特高'와의 교제술에 관해서 자신의 체험을 술화하였고 한글시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도 엄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여든 한 살인 이 현역시인의 진솔한 언변도 이 날의 큰 수확

이었고 특히 원문대로 낭독된 〈序詩〉의 여운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사실 나는 자신이 조선반도에서 성장했다는 것 외에는 尹東柱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양해를 구해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연회전문학교 재학시에 적었다는 준수하고 단정한 사친의 인상을 말한 다음, 긴 세월 제관소라는 특수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써 '우리 말'을 사랑한 이 시인에게 그 작품의 일본어 번역을 강요한 관헌의 잔혹성과 시인 尹東柱가 받은 굴욕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 그 모임을 주관했던 시인으로 부터 보내온 '대학통신'속에 고당요(高堂要)라는 사람이 쓴 '모순의 사람 尹東柱'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내가 어렵곳이 파악하고 있던 尹東柱와 모국어, 그리고 일본어와 尹東柱에 관해서의 '언어'와 '시인'의 관계가 단도직입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인용을 해보려고 한다.

“尹東柱에 관해 일본어로 쓰는 것은 매우 적당치 않다. 일본어는 尹東柱에게 있어 어거지로 배워야 했던 이국의 언어이고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면서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언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모국어로 시를 썼다 하여 반일적, 항일적 행위로써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자신이 쓴 한국어 시를 일본어로 번역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중략—

그는 자신의 시적 세계, 문학적 세계를 심화, 추구, 연마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문학을 배워야만 했다. 좋아하는 시인 릴케와 프랑시스 잼을 읽은 것도 주로 일본어였다.....”

高堂씨의 문장의 일부분이지만 예리한 필치로 尹東柱에게 접근하여 “내가 그에게 끌리는 것은 '모순의 사람', 안으로 찢긴 혼의 상처를 별 수 없이 꺼내고 있는 사람, 고쳐잡히지 않거나 허무에 시달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모순의 사람'

尹東柱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尹東柱 이해를 돕는 큰 길잡이이고 세삼 그 시점에서 尹東柱의 사람과 작품에 다가가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尹東柱는 일본 통치하의 가혹한 상황에서 ‘치안유지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에 의해 체포 구류되었다. 그리고 ‘옥사’라는 비극적 최후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악업과 잔학성을 상징하는 ‘순교의 사람’, ‘저항의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작품에 접해가면 그 어디에도 노골적인 저항의 자세나 정치적인 문구는 없다. 오히려 내성적인 우수에 찬 서정시인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사상성을 지니는 이지의 시인이다. 여기서도 현대에 있어서의 尹東柱 평가에 큰 모순을 보는 것이다.

나는 길지 않은 발언의 마지막을 尹東柱 작품 〈자화상〉의 낭독으로 맺었지만 이 시는 그의 전작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쩔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尹東柱의 이름이 일본의 시단이나 매스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십수년 남짓이지만 한국에선 김소월, 이육사 등과 필적되는 ‘국민시인’으로서 일찍이 그 작품과 사람이 크게 평가되어 있다. 작년 가을 한국에 갔을 때 운동주시집을 임수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내 한글 실력으로 읽는다는 건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 후 임수한 尹東柱全詩集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伊吹郷역)와 평론 〈尹東柱·그의 기독교성〉(森田進자), 또 尹東柱詩篇의 일본 어역 등을 실마리로 해서 나 나름의 ‘尹東柱메모’를 시도해 보고싶다. 이 작업은 나의 본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선반도에의 뜨거운 그리움과 이국땅에서 옥사한 애절한 시인에게 깊은 애도로서 보내는 나의 송가(頌歌)이며 진혼가(鎮魂歌)이다.

尹東柱는 1917년 12월 30일 중국 동북부의 복간도 명동(明東)에서 출생했다. 이 지역은 현재도 조선족의 자치구로 알려져 있지만 증조부 尹在玉시대에 이주했다고 한다. 부친은 尹永錫, 모친은 金龍, 여동생 혜원(惠媛)과 역시 시인인 남동생 一柱, 光柱가 있다.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조부 尹夏鉉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東柱는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 그 안에 강인한 의지를 지녔던 소년이었다고 한다. 소학교부터 중학교로 이어지는 친구에 한국의 간디로 불린 목사 文益煥이 있다.

1932년 東柱는 은진(恩津)중학교에 입학하였고, 그 시절부터 그의 문예활동은 시작되었다. 그 후 崇實중학, 다시 光明학원중학부로 진전하고 있으나 이미 延吉에서 발행된 《카톨릭 소년》에 〈병아리〉, 〈빛자루〉, 〈오줌싸개의 지도〉 등의 동화를 발표해 온 尹東柱

는 이 송실시절에 학우회지 《숭실활천(崇實活泉)》의 편집을 맡았었고
고 詩 〈空想〉을 발표하고 있다.

空 想

空想—

내 마음의 탑

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

명예와 허영의 천공(天宮)에다

무너질 줄 모르고

한 층 두 층 높이 쌓는다

무한한 나의 空想

그것은 내 마음의 바다

나는 두 팔 펼쳐서

나의 바다에서

自由로이 헤엄친다

황금 지옥(知慾)의 수평선을 向하여

尹東柱가 다닌 恩眞, 崇實 이 두 중학교는 반일색(反日色)이 짙은 학교였다. 총독부가 각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국민정신총동원이 라는 구호아래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尹東柱의 모교인 崇實은 ‘참 배나, 폐교나...’를 협박하는 총독부를 향해 ‘NO’를 고집하여 1938 년 폐교되었다. 이 사건은 필시 尹東柱의 다감한 청춘기 정신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光明학원 중학부 편입 후에 4학년, 5 학년을 통틀어서 ‘일본어의 성적이 가장 나빴다’고 하는 尹東柱였다.

그가 의식적으로 문학에 뜻을 세운 것은 중학 출업을 앞두고 진 로문제에서 의과대학에 가라는 부친과 대립하며 연희전문학교 문 과를 택한 그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는 시인이자 함께 후쿠오카형

무소에서 육사한 친구 송몽규(宋夢奎)와 함께 연희전문에 입학했다. 송몽규는 이미 중학시절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공클 콩트부문에 당선되었을 정도로 조숙한 文才인 한편,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는 등 과격한 사상과 행동력의 소유자였다.

尹東柱가 입학한 1938년 당시의 연희전문은 민족주의의 기풍으로 꽤 찬 학원 중의 하나였으며, 이 시기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국 어학자 최현배가 어떤 사건에 연좌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사직을 당했다. 그러나 이 연희에서의 4년간이 尹東柱로서는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유롭게 삶을 구가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라고들 말한다(송우 해 지음)―〈청춘의 시인〉에서.

이 시기에 그는 정병욱(후에 서울대학의 고전문학교수)이라는 생애의 지기와 만나고 존경하는 선배 시인 정지용과도 교류하고 있다. 1941년 12월 연희전문을 졸업(학제 단축으로)한 尹東柱는 1942년 3월 도일, 임교대학 영문과에, 그 두 달 후에는 교토의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옮겼다.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연희 재학시부터 일본 유 학 무렵(23~34세)의 것이고 이 시기에 이미 自選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간행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西日本新聞의 井手俊作기자의 신문연재물 ‘빼앗긴 시혼—발굴·尹東柱의 육사’에서 이 박행한 시인의 생애와 비참한 죽음의 사실, 그 슬프도록 투명하고 고고한 詩정신에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빼앗긴 詩魂’이 말하듯이 우리 말의 소멸 위기감을 안고 있던 국 어학자 최현배에게 강렬히 기울고 있던 尹東柱는 단연코 한글로 시를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 하에서의 한글교육 폐지(1938년) 강행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그러나 창씨개명 실시라는 일제통치 하에서 어쩔 수 없이 卽召東柱가 된다. 그것이 일본유학에의 渡航증명서를 얻어낼 수 있는 필수조건이어서였다.

최현배에 의해 우리 말에 눈을 뜬 尹東柱에게 있어 한글에 의한 詩행위는 글자 그대로 죽음을 건 선택이었다. 그의 작품으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다음의 작품이다.

서 시(序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독자 개인의 감수성에 맡겨질 일이지만 나는 포로로그로서의 그것이기보단 오히려 에필로그로서의 죽음을 예감한 終詩(유서)로도 생각되어진다. 24세에 이미 이 경지에 도달해버린 요절시인의 천재성과 비극성을 거기서 보며 마음이 아파온다. 尹東柱의 작품에는 거의 삶의 정의와 생활의 추구에의 괴로움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의 尹東柱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작품들 저변에 깔려 있는 기독교적 윤리관과 유교적 정신의 자세, 그리고 조선어가 갖는 표현의 깊이에 관해서의 학습과 인식이 요구된다. 이번 봄의 京都·同志社大 심포지움에서도 尹東柱작품의 번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한다. 그 一例로서 序詩의 첫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에 관해서 번역자인 伊吹郷哉와 주최측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고도 듣는다.

伊吹씨 번역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라고 되어있는 하늘은 우리들의 표면적인 지식으로선 하늘 이외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휘이지만 어원적으로는 이 나라의 고유數詞인 ‘하나’에 유래하고

있어 空, 天, 神, 또는 天國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죽는 날까지 天을 우러러’로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森田進씨 번역에는 ‘天을 우러러’로 되어 있으며 이 두 줄에 대해 森田씨는 ‘동남아세아적 윤리관인 恥... 는 여기선 수직적인 天 상에의 視線과 이어져 있다. 이 청렬하기까지 한 의지아말로 조선의 기독교인이 터득한 순절의 의지이다’라고 尹東柱를 찬양하고 있다.

尹東柱가 체포된 것은 1942년 7월 14일이었다. 완전한 기습체포였으니 그의 경악과 실망은 어땠겠으랴 상상이 간다. 그의 구체적인 용의사실이 밝혀진 것은 1970년이 한참 지나서 尹東柱 연구가인 宇治郷毅씨에 의한 ‘特高月報’ 복각본의 열람에 의해서였다. 尹東柱의 수난의 계기는 사촌이었다. 유년시절부터 친형제처럼 성장해 온 宋夢奎의 사상과 행동을 눈여겨오던 ‘特高’의 먹이로 말려 들은 불행이었다.

그 부분의 사정을 尹東柱와 함께 체포되었던 高熙旭(당시 三高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사건은 宋夢奎씨가 경찰의 要觀察人이었기 때문에 생긴 거지요. 宋을 경찰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줄 모르고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 또는 ‘독립운동’ 등을 주머니받거나 한 거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경찰이 그것을 깡그리 엿듣고 미행해서 사건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高熙旭은 尹東柱의 인품을 “체격은 마른 편이고 흰 얼굴에 목소리는 좀 선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침착한 면이 있으면서 반면 정열적이었지요. 무척 공부를 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창백한 인텔리라는 인상이었구요. 항상 우리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색조가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동지의 증언인만큼 현실감이 있다. (宋友惠 지음 《尹東柱—청춘의 시인》에서)

그러나 생체실험의 희생이 되어 숨졌다고도 말해지는 尹東柱 옥사의 진상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다시 妄言여우 日本 江藤에게

아차
그 때 피를 토하며
거꾸러진 늙은 여우

요망한 혼이 빠져나와
동으로 날아 갔다더니

그렇군
이등을 닮은
네놈이 태어났었구나.

이름은 바뀌달았다만
낯짝은 그대로인 여우

요기 가득 서린 눈빛
내가 네속 몰라볼까.

몇놈이 태어났더라도
다시는 어림 없다.

불에 달궈 두들겨진 쇠가
단단한 줄 모르는가

이제는 속을 차려
네 죽을 짓 하지 말길

7천만 총을 겨누고
너를 향해
이를 간다.

P. E. N. 憲章

P. E. N. 憲章は幾回もの国際大会の決議に基いて制定されたもので、その要旨は次の通りである。

P. E. N. クラブは次のことを確認する。

1. 文学は民族に由来するものではあるが、国境はないのであって政治的あるいは国際的紛争にかかわりなく、諸民族に共通なものである。
2. 芸術作品は人類全体の遺産であるから、あらゆる場合に、特に戦時において、国家的または政治的感情によって左右されてはならない。
3. P. E. N. 会員は常に諸国家間の善意の理解と相互の尊敬のために尽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P. E. N. 会員は人種的、階級的、また諸国家間の憎悪を排除して、平和のうちに一つの世界に生活する人類という理想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誓う。
4. P. E. N. は各国内のみならず、あらゆる国家間において思想の交流が妨げら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支持する。会員はその属する国、および社会において、表現の自由に対するあらゆる抑圧に反対することを誓う。P. E. N. は平時における言論、報道の自由を堅持し、独断的な検閲に反対する。P. E. N. は世界がより高度の政治的、経済的秩序へ発展するために、政治や政府の諸制度に対して自由な批判が必要であると信じる。自由は責任を伴うものであるから、会員は言論、報道の自由にまつわる悪弊、即ち、政治的、個人的目的のための虚偽や捏造や歪曲に反対することを誓う。

以上の目的に賛同する文筆家、編集者および翻訳家はすべてその国籍、人種、皮膚の色、または宗教の如何を問わず P. E. N. の会員となることができる。

日本ペンクラブから各メディアへの緊急要請書

去る3月8日に「人権擁護法案」が閣議決定のうえ国会に上程された。継続審議中の「個人情報保護法案」ともども優先審議される可能性は高い。さらに自民党は、「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も国会上程の機をうかがっており、言論表現とメディア規制に関するいわゆる"三点セット"の成立がまさに迫っているといえよう。

これら一連の立法は、個人の表現行為やメディアの取材・報道活動を規制し行政の監督下に置こうとする提案であり、憲法21条に保障された言論表現の自由及び国民の知る権利をそこなうおそれが強い。日本ペンクラブは、作家、評論家、フリーランスライターなど表現者の集団としての立場から、これらの立法には抜本的な再検討が必要であることを繰り返し表明してきた。

3月7日に明らかにされた日本新聞協会、日本民間放送連盟、日本放送協会の新聞・通信・放送320社による人権擁護法案に対する共同声明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メディアやメディア関係団体もこれらの立法提案に対し、報道の自由擁護の観点からの反対や批判の態度表明、シンポジウム開催等を通じた取り組みを重ねてきた。日本ペンクラブはこれらの活動に心から敬意を表するも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言論表現の自由や国民の知る権利という民主主義の基本が脅かされようとしている重大な事態にもかかわらず、なお法案の危険な本質や問題点を国民が十分に理解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これらの一連の立法の意味についての徹底的な精査や議論を経ることなく法案が可決成立する事態は何としても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ペンクラブは各メディアに以下の点を強く要請したい。

新聞社、テレビ局、出版社（雑誌と書籍）は自ら表現のためのインフラを持っている。声明文の公表やシンポジウム等の開催だけでなく、自らの紙誌面、番組をより積極的に活用することで判断素材を国民に提供していただきたい。

2002年3月15日

社団法人 日本ペンクラブ
会長 梅原 猛

表現の自由に関する緊急アピール

いま、幾つかの法案が、国会で審議されています。いずれも、表現者にとって無縁の内容ではなく、この国の今後を考えるにあたって、大きな問題をはらんでいる法案です。

すでに各界からさまざまに指摘されていますが、これらの法案に対して、舞台芸術に携わる表現者としての立場から、次のように反対を表明いたします。

「個人情報保護法案」「人権擁護法案」「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そして有事関連3法案は、いずれも主務大臣などの国の機関が、表現の規制に関与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取り締まる対象やその根拠が、具体的ではなく、恣意的に解釈できる内容です。

「人権擁護法案」は、「メディア規制につながる」と批判された犯罪被害者や家族等へのプライバシー侵害、過剰な取材についての規制部分は凍結が合意されたと報道されています。しかし、表現行為にとってより本質的と思える差別的表現に対する事前規制については十分議論されないまま、成立が図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そもそも同法案は、国連からの勧告で、法務省管理下の刑務所などでの人権侵害を監視するための法案としてスタートしたにもかかわらず、なぜか表現規制にまで拡大された上、取り締まり機関である人権委員会が、法務省の管轄（外局）とされています。

また、「個人情報保護法案」については、与党三党から「修正要綱」が提出されていますが、各界から様々な反応があり、今後も内容について注意深く見守り、議論を深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では、性と暴力に関する表現について、何が有害かを国が基本方針として規定し、事業者ごとに協会を作らせて、表現行為に直接介入できる規定になっています。性にしても暴力にしても、時代や地域、宗教、風習の違い及び、表現行為の目的や性格によって、その表現の許容範囲は、千差万別です。この法案にしても、「人権擁護法案」にしても、民事・刑事の問題として、現行でも、被害がおきた場合の対処はなされています。国があらかじめ規定を設けて取り締まる必要はないはずです。

以上の問題点が改められない場合は、いずれの法案も廃案とすべきです。

同時に、真に国民の利益を考え、自由や平和や安全を守るため、表現の自由を規制せず、かつ国連勧告に添った、公正な立場を保ちうる監視機関を持つ「人権擁護法案」や、公的機関が個人の情報を悪用しないための「個人情報保護法案」の成立を望みます。

有事関連3法案は、有事の規定を一方的に押しつけるものです。3法案及び、概要のみ提示されている「国民保護法制」においても、「国を守るための協力」という言葉で、主権者である国民の権利や財産、表現の自由を制限し奪う規定に対しては断固反対します。

日本劇作家協会・日本演出者協会・協同組合日本脚本家連盟
全国演劇鑑賞団体連絡会議幹事会・日本舞台美術家協会
協同組合日本俳優連合（1月27日付）

2003年1月22日

2002 年 4 月 24 日

個人情報保護法案と人権擁護法案に対する緊急声明

日本新聞協会

個人情報保護法案と人権擁護法案について、日本新聞協会は繰り返し「報道の自由」に十分配慮するよう求めてき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政府提出の両法案は、われわれの主張をほとんど無視し、憲法で保障された「表現の自由」に政府が介入する道を開くものとなっている。

個人情報保護や人権擁護を名目にして、報道の自由を不当に制約したり、報道機関を監督する主務大臣を置いたり、取材・報道活動を独立行政委員会の裁量にゆだねるなど、報道機関の死活にかかわり、断固反対する。

報道による人権やプライバシー侵害の問題は、報道機関の自主的な対応で解決を図るべきである。民主主義の根幹をなす国民の「知る権利」はあらゆる機関から独立したメディアが存在してはじめて保障されるとわれわれは固く信じる。

以 上

ニーメラー牧師の回想

ナチスが共産主義者を攻撃したとき自分はすこし不安であったが、とにかく自分は共産主義者ではなかった、だから何も行動に出なかった。次にナチスは社会主義者を攻撃した。自分はさらに不安を感じたが、社会主義者ではなかったから何も行動に出なかった。それからナチスは学校・新聞・ユダヤ人等をどんどん攻撃し、自分はそのたびにいつも不安をましたが、それでもなお行動に出ることはなかった。それからナチスは教会を攻撃した。自分は牧師であったから、だからたって行動に出たが、そのときはすでにおそかった。

「人権擁護法案」に対する意見

社団法人 日本書籍出版協会
理事長 渡 邊 隆 男

政府は去る 3 月 8 日、「人権擁護法案」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同法案は、「人権の擁護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推進し、もって、人権が尊重される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高らかに謳っ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この法案に対して言論・報道界をはじめ多数の識者から澎湃として反対の声があがっています。それらに共通する最大の理由は、この法案が「個人の表現行為やメディアの取材・報道活動を規制し行政の監督下に置こうとする提案であり、憲法 21 条に保障された言論表現の自由及び国民の知る権利をそこなうおそれが強い」からであります。

私どもは下記にこの法案の主な問題点を列挙するとともに、この法案が廃案とされるか、さもなくば抜本的に修正されるよう政府当局者ならびに国会議員各位に訴える次第であります。

◆報道機関等の人権侵害

例示されている事項は、いずれも基準が明確でなく広範かつ包括的である。歯止めのない恣意的運用に道をひらくものである。表現の自由や報道の自由こそ我が国憲法体制の基盤である。「人権委員会」の判断でかかる報道機関等の人権侵害を認定し、「予防を図るため」とし「必要な措置を講ずる」となった場合には国家権力による言論統制の危険が大きい。

◆予防措置等の広範な導入

人権侵害が「発生するおそれのある被害の適正かつ迅速な救済又はその実効的な予防」として、「適当な措置」、「必要な調査」等々を随所に定めている。国家による事前検閲に道をひらくものである。

◆独立性を欠く「人権委員会」

法務大臣の所管となる「人権委員会」は行政機関であることに変わりない。他の省庁との関係においても独立性を欠くこととなり、「独立してその職務を行う」ことの担保はない。さらに、国連の規約人権委員会勧告が指摘する国家による人権侵害の救済等の措置は甚だ不十分である。

◆「人権」の定義がされていない

「人権侵害」の定義はされていても、「人権」や「差別助長行為等」の定義がされていないため恣意的な運用に道を開く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この他にも多くの問題点があります。私どもは、昨年 1 月、この法案の前段階である「中間取りまとめ」に対して意見書を提出し、強制調査権限を有する人権委員会等の設置に反対である旨を表明してまいりました。

出版に携わる私どもは、「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の重要性を主張するとともに、出版倫理綱領を定め、「言論出版の自由を濫用して他を傷つけたり、私益のために公益を犠牲にするような行為は行わない」、「報道の出版にあたっては、報道倫理の精神にのっとり、また評論は、真理を守る忠実にして節度あ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は、真実を正確に伝えとともに、個人の名誉は常にこれを尊重する。」と宣言しております。この法案でいう報道機関等の人権侵害の問題は、関係者の良識と自主的対応に委ねられるべきであります。問題が生じた場合には、現行法体制における諸制度によって対処することが至当であると考えます。

提案されたこの法案は、日本国憲法が保障する言論表現の自由を根本から破壊してしまうおそれのある法案であることがいっそう明白になりました。「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た」我が国であります。憲法を擁護する義務と責任を有する政府・国会は、先の大戦において国の内外に大きな災禍をもたらす結果となったわが国における言論弾圧の歴史を省み、この法案のもつ危険性を真剣に考慮して廃案あるいは慎重審議の上、抜本的修正を図るべきであります。

以 上

【社説】個人情報保護の新法案／修正されてもまだ残る不安

宮崎日日新聞 2003 年 1 月 31 日

昨年臨時国会で廃案となった個人情報保護法案に代わる新法案が明らかになった。政府、与党三党は今国会に提出し、成立を目指す。

与党が修正をとりまとめた新法案はメディア規制と批判されていた五つの基本原則を削除し、規制や罰則の対象から報道機関や著述者を除外するなどしている。

だが、適用除外を明記された事業者のほかは前法案のままであり、市民団体などへの国の管理が強まる余地は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

この新法案でいいのかどうか。原点に立ち返った論議が必要だ。

広がった適用の除外

前法案には個人情報の適正な取り扱いに関する五つの基本原則として、「利用目的による制限」「適正な取得」「正確性の確保」「安全性の確保」「透明性の確保」が盛り込まれていた。

これらの原則が貫かれると、例えば汚職事件の取材相手にも利用目的を告げなければならず、メディアや国民世論から「報道・言論の自由と国民の知る権利を奪う悪法」との強い批判を受けていた。

このため、新法案は基本原則に代わり、「基本理念」が定められた。個人情報とは「適正な取り扱いが図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た。評価できる修正といえる。

個人情報を取り扱う事業者へ勧告・命令などをする「主務大臣権限」も弱められている。

前法案では主務大臣に表現の自由、学問の自由、信教の自由、政治活動の自由への配慮を求めていたが、新法案はこれらの自由を「妨げてはならない」と義務づけている。ただ、その判断内容は大臣任せであることは問題だ。

新法案では罰則などの適用除外も広がった。報道機関、学術研究機関、宗教団体、政治団体のほかに、作家や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も除外される。当然のことである。

住基ネット大丈夫か

新法案に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も主務大臣が設けられ、NPO法人への規制も現実化することへの懸念が既に関係者から表明されている。

もともと、廃案になった前法案はすべての分野に適用される法律として構想されたものだ。だからこそ、五つの基本原則を定めた。

新法案ではこれがなく、適用除外も広がったわけだから、分野別の規制方式にし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金融、通信、医療などの分野ごとに特別法を設けている国もある。新法案が妥当かどうか。

政府は新法案とともに行政機関個人情報保護法案の修正案も提出する。主な対象は中央省庁である。修正案は行政機関の職員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個人の秘密に属する個人情報ファイルを提供した場合、懲役や罰金を科せられる。

だが、センシティブ情報（プライバシーや国家機密など慎重に扱われる情報）について、収集制限の規定がなく、目的外使用を広く認めている。

個人の同意がなくとも情報が集められ、開示要求には拒否でき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

しかも「正当な理由」があればいくらかでも勝手に利用できる。防衛庁が人権侵害を行った個人情報リスト作成のようなことが起こらないともかぎらない。

八月には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ークでICカード使用が始まるが、何とも心もとない。国会は二法案を国民が安心できる法律に仕上げていくべきだ。

【解説】報道機関に強い危機感

共同通信 2002 年 4 月 24 日

日本新聞協会は 24 日、いわゆる「メディア規制法案」といわれる個人情報保護法案、人権擁護法案について「報道機関の死活にかかわり、断固反対する」と国民に向け異例の緊急声明を出した。声明は、新聞、通信、NHK、民放の報道機関一致の強い危機感の表明だ。

会期末が 6 月 19 日の今国会ではメディア規制法案のほか、有事法制関連 3 法案、医療制度改革に絡む健康保険法改正案など重要法案が並ぶ。国会審議が難航すれば、与党 3 党が成立優先を確認した個人情報保護法案が与野党の取引材料として使われ、成立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国会論議に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個人情報保護法案は、1999 年の住民基本台帳法改正の国会審議の中で「国民総背番号制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の危ぐが出発点だった。

また人権擁護法案は、同和問題の差別解消のために取られた財政措置が今年 3 月、地対財特法を最後に期限切れになることから法務省を中心に制定が急がれていた。

しかし、両法案ともいつしか「個人情報保護」「人権擁護」の名の下、メディア規制に軸足が移っていった。「永田町」と「霞が関」、つまり、政治家と官僚の思惑が一致したからだ。

法案が成立すれば、報道機関が戦後初めて内閣府や法務省の監督下に置かれかねない事態になる。声明の「政府が介入する道を開く」という文言の意味だ。

元秘書による公共工事の口利き事件など政治家に絡む疑惑報道、外務省機密費流用事件など役所の不祥事、みずほグループによるシステムトラブルなどの企業取材、日常の事件・事故など取材・報道活動がこれらの法律を盾に大きな制約を受ける。国民が必要とする情報が読者、視聴者に届かなくなる。

結果として「国民の知る権利」が損なわれる。

こうした指摘は報道界のみならず、『表現・報道の自由』と絡めて両法案に疑問を呈する有識者共通の認識だ。

【解説】メディア規制3法案とは

共同通信 2002 年 3 月 14 日

メディアを規制対象とする「人権擁護法案」「個人情報保護法案」「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のいわゆる“三点セット”を指す。法務省が立法化を進めていた人権擁護法案は三月八日に国会提出された。継続審議となっている個人情報保護法案の審議も間もなく再開され、青少年法案は自民党が近く国会提出の予定だ。三法案は、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や国民の知る権利を脅かす危険性が強く指摘され、メディアが一斉に反発している。

【個人情報保護法案】

個人情報保護法案は、一九九九年の住民基本台帳法改正に伴い、官民が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の必要性が指摘され法案づくりが進められた。原点は個人データの流出防止だったが、与党の働き掛けで報道を強く意識した内容になった。

個人情報を扱うすべての者が守るべき基本原則として①利用目的の明確化②情報の適正な取得③内容の正確性の保持④漏えい防止に向けた安全確保⑤本人が関与できる透明性の確保—の五項目を規定。さらに具体的に、本人の同意がない情報収集や第三者への提供を禁止するなど、さまざまな罰則付きの義務規定を設けた。

報道機関や学術研究機関、宗教団体、政治団体は、義務規定の適用は除外されるが、基本原則の順守という網はかかるため、日本新聞協会などメディア側は、報道や文学など表現活動の委縮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して、基本原則も含めた全面的な適用除外を強く求めている。

【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

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基本法案は、少年の凶悪事件が相次ぎ、はっきりしない動機や衝動的犯行の要因としてテレビゲームやビデオなどの影響が指摘されたのをきっかけに、自民党が「有害」な性・暴力表現から青少年を保護するとして、今国会への提出を検討している。

苦情処理などに当たる「青少年有害社会環境対策協会」の設置を新聞、放送、出版などの各業界団体に義務付け、協会は事業者の説明や資料提出を要求できる。業界ごとの主務大臣や都道府県知事は協会に指導や助言、勧告などを行い、協会運営が著しく不適切と判断すれば「勧告・公表」もできる。

協会は形式上自主組織だが、対策の基本方針を定めるのは政府で、判断基準は行政当局に委ねられる。非行と有害情報の影響の因果関係ははっきりせず、「有害」の定義もあいまいで、処分を受けた事業者の異議申し立て手段もないなどの問題点が指摘される。

【人権擁護法案】

人権擁護法案は、差別や虐待などの人権侵害に対して実効性のある措置を講じる「人権委員会」を新設するため人権擁護推進審議会の答申を受け、法務省がまとめた。

報道機関によるプライバシー侵害や過剰取材を初めて規制対象に加えた。どの程度が「過剰」かは人権委の判断に委ねられており、メディア側は「行政による不当な干渉につながる」と強く反発している。

法案は①人種や障害などに基づく差別②公権力の行使などによる虐待③報道による人権侵害—などを「特別人権侵害」とし、人権委が認定すれば、調停・仲裁のほか人権侵害の停止勧告や公表、被害者が起こす訴訟の援助など「特別救済」の措置が取られる。

報道以外については強制力を伴う「特別調査」が可能で、拒めば三十万円以下の過料。

人権委事務局は法務省の人権擁護部門がくま替え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政府からの独立性の確保も問題にな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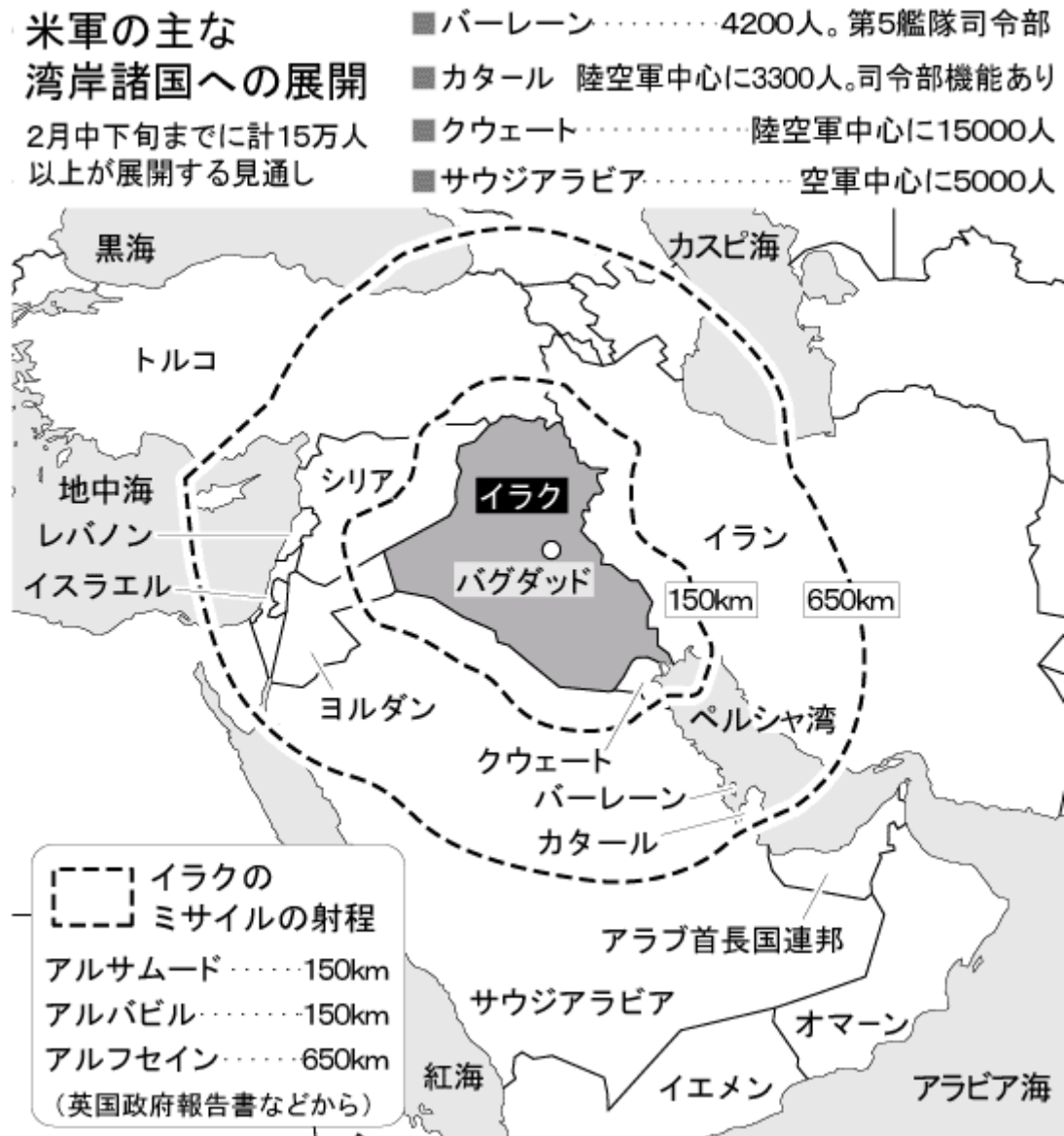
開始 48 時間で大規模空爆 イラク攻撃で米紙報道 朝日新聞 2003 年 2 月 3 日

空爆開始 48 時間で 3000 発の精密誘導弾とミサイルでイラク軍を孤立化させて地上軍が進攻、フセイン政権を電撃的に転覆させる——2 日付の米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米国防総省が立案したイラク攻撃の詳細なシナリオを報じた。作戦実施に必要な兵力の展開は 2 月中旬にも整う見通しだとしている。

同紙によると、空爆には、衛星誘導弾を積んだ B2、B1 爆撃機を主体に空軍の約 500 機、4、5 隻の空母から海軍の計 200 機以上が出撃する。イラク軍の防空施設、政治軍事上の拠点、通信施設、生物・化学兵器の運搬手段と疑われるものなどが攻撃対象になるという。

立案者によると、イラク軍の戦闘意思を喪失させることが当初の目的で、大多数の部隊を降伏、離反させ、イラク指導部との連絡を遮断したうえで保護下に置き、政権の急速な崩壊をねらう。イラク側による油田の破壊や生物・化学兵器の使用を防ぐための特殊部隊も投入する。

使われる精密誘導弾の数は、91 年の湾岸戦争の当初 2 日間の 10 倍。投下される爆弾の 75% 以上になる見通しだ。攻撃の正確さが大幅に向上することから、空爆の期間は前回を下回る 1 週間以内に短縮される見通しだ。地上軍は陸軍 2 個師団と海兵隊で編成、トルコ側とクウェート側の 2 方向からイラク領内に入る。また、数百万ワットの電力を発してイラク側のコンピューター機器を動作不能にする強力な極超短波兵器などの実験的な使用が検討されているという。



イラク攻撃、欧州 5 カ国では反対意見が優勢＝調査

ロイター2003 年 2 月 2 日

〔パリ 1 日 ロイター〕 調査会社ギャラップが先日行った世論調査で、フランスとドイツ、スペイン、英国、ロシアの各国民の大多数がイラク攻撃に反対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フランスの週刊紙ジュルナル・デュ・ディマンシュが伝えたもの。

調査は先月 15—16 日、上記 5 カ国と米国から各 1000 人を選んで行われ、イラク攻撃に全面的に反対か、国連決議があった場合に限り攻撃を認めるか、一方的攻撃を支持するかについて回答を求めた。

その結果、イラク攻撃に全面的に反対と答えた回答者は、米国支持を表明しているスペインで、調査国中最高の 74% を記録した。

政府がイラク攻撃に反対しているフランスとドイツでは、それぞれ 60% と 50%。

フランスやドイツ寄りの姿勢にあるロシアでも、攻撃に全面的に反対とする回答者が 59% を占めた。

一方、米国と近い関係にある英国は 41%、米国は調査国中最低の 21% にとどまった。

ニューヨークでイラク攻撃反対デモ

ロイター2003 年 1 月 30 日

〔ニューヨーク 29 日 ロイター〕 ニューヨークのタイムズスクエアで 500 人以上が参加した反戦デモがあり、米国のイラク攻撃の可能性に一段と警戒感を強めるデモ参加者が、家路を急ぐ通勤客に反戦を訴えた。

デモ参加者は、警察が指定したブロードウェイの地域でプラカードを掲げ、スローガンを連呼した。

主催者らは、ブッシュ大統領が 28 日に行った一般教書演説を”戦争演説”と非難。パウエル国務長官がイラクの大量破壊兵器疑惑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予定の 2 月 5 日にも、タイムズスクエアでデモを行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デモ参加者は、小雪が降るなかを 1 時間以上行進し、国連本部ビル前で集会を終えた。

